

- ◆... 인간의 평균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노인에서의...
- ◆... 질병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연령이...
- ◆... 가할수록 모든 장기의 세포가 그러하듯이 신경...
- ◆... 세포도 점차 소실되며 특히 뇌세포는 재생이...
- ◆...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고령자...
- ◆... 에서는 뇌질환이 많고 치료도 어렵고 다양한...
- ◆... 상을 보인다. 각 신경계별로 노인애 많은 질병...
- ◆... 을 간략하게 관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

보다는 노년층에 더욱 많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뇌혈관폐쇄는 혈류가 좋은 회백질보다는 백질에 더 많이 발생하나, 노년층에서는 전반적인 뇌혈관부전으로 인하여 백질과 동시에 회백질에도 발생한다. 폐쇄의 원인이 되는 만성고혈압·동맥경화증·당뇨병 등이 노년층에 필수로 발생빈도가 커질뿐 아니라 뇌혈관의 노쇠·뇌신경의 노쇠로 인하여 증상도 더욱 심해지고 다양해지는 것이다. 노인에서는 흔히 골절이 발생할수 있어 여기서 비롯되는 지방색

양상대, 혈액순환이 양호하지 못하여 욕창이 자주 발생되고 회복도 안되며, 자율신경계 기능저하로 인하여 요실금도 많고 따라서 방광염도 자주 발생한다.

4. 경련성질환

노년층에서 발생하는 간질성 발작의 원인은 뇌혈관부전증이 가장 많고, 뇌종양 및, 뇌위축, 뇌내상처부위에 의해서도 잘 발생한다.

5. 뇌종양

노년층에서는 전이성 종양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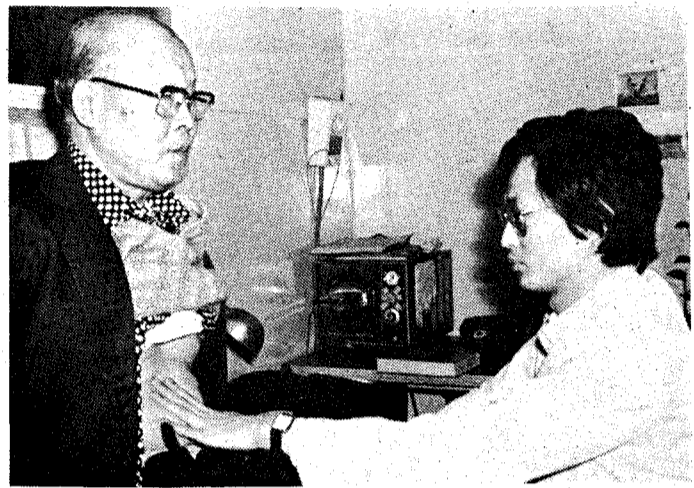
고령자의 神經系질환

神經系질환별 症狀과 治療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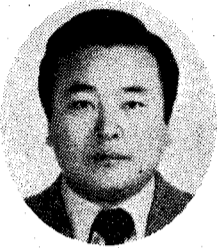
가 초래되는 경우 의심해 볼 수 있다. 전적수동맥폐쇄는 부지

충분한營養섭취가 무엇보다重要

1964년 Steele 등이 발표한 Progressive supranuclear palsy 도 노년층에서 많다. 兩眼의 상방주시마비·평형장애·진행성의 파킨슨증상·치매도 동반된다. 뇌전산화촬영상 심한 대뇌피질위축을 보인다. 대뇌위축시는 부위에 따라 여러 증상을 볼수있어, 두정엽위축시는 공간감각소실이 되어 침대에서 노인들이 자주 떨어지는 것을,



◆Niacin이 부족하면 피부질환·설사·치매가 동시에 초래되는 Pellagra라는 병에 걸리기 쉽다. 이런 영양부족으로 생기는 질환은 예후가 나쁘기 때문에 예방과 평소 충분한 영양섭취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진은 記事특정사실과 관련없음)



金明浩
〈漢陽醫大〉
〈신경과 교수〉

뇌 질환

노인성치매 (Senile Dementia)는 질병이라기 보다는 연령에 따른 생리적 현상이라 말할수 있으며 뇌세포소실로되는 위축되고 뇌실은 커지게된다. 일반적으로 남자는 65세, 여자는 70세 전후해서 기억력감퇴가 뚜렷해지는 양상을 보인다. 지능도 떨어지며 정신적기능의 변화도 될수있어 흔히 노망이라 하는 Senile psychosis도 생길수 있다. 알콜중독이라든지 홀로 사는 노인에서는 영양이 부족되기 쉽다. 예를들면 Niacin이 부족하면 피부질환·설사·치매가 동시에 초래되는 Pellagra라는 병에 걸린다. 이런 영양부족으로 생기는 질환은 예후가 나쁜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예방과 조기치료로 좋은 결과를보이므로 노인에서는 특히 영양섭취가 중요하다. 내분비계 이상으로도 치매가 초래되며 대표적인 병으로는갑상선종(Myxedema)이다. 환자는 체온이 낮고 다발성 신경염을 특징적으로 보이며 정신이상·의식장애를 보이기도한다.

2. 퇴행성질환

퇴행성변화는 고령이 될수록 많이 나타난다. 흑질의 퇴화로 인해 도파민생성이 감소되어생기는 파킨슨병(Parkinsonism)이 대표적이다. 몸이 앞으로 구부러지고, 쉬고있을때수축을 떨며, 사지가 뻣뻣해지고, 안면이 무표정하며, 활동이 느려지는 특징적 증상을 보인다. 노인성진전증(Senile tremor)은 파킨슨병의 진전증과는 달리 더욱 섬세하고 빠르다. 처음에는 활동을 할때만 나타나다가 나중엔 휴식시에도 나타난다. 상지에 주로 나타나고 파킨슨병과는 다르게 머리에도 나타난다. 리듬있게 머리를 앞뒤로 흔드는것을 특징적으로볼수있다. 노인에서는 특히 연탄가스중독후 지연성후유증이 잘 초래된다. 이런경우 기억력이 갑자기 감퇴되어 가족을 못 알아보는 치매의 증상을 보이는외에도 양측성담창구피사와 같이 기저핵퇴화로 인한경우 상지는 굳어지지 않고 심전도 사지가 뻣뻣해져 無動無言症(Akinetic mutism) 상태를 보이기도 한다.

피부질환·설사·치매동시에 초래

알콜중독시에 留意해야

노년층에서는 보행장애·부자연스러운 행동을 보인다. 3. 혈관질환 특히 혈관성질환은 60代후의 노년층에서 많다. 혈관벽의 신축력이 감소되고 동맥경화증·당뇨병등이 혈관의 직경을 작게하여 심박출량의 20%를 차지하는 뇌의 혈액공급이 원활치 못하게 됨은 주지의 사실이다. ①일과성뇌허혈: 뇌신경조직의 혈액공급이 일시적으로 부족하여 발생하며 대개는 회복된다. 경동맥의 국소협착증이 있거나, 또는 심장의 부정맥이 일시적으로 뇌허혈을 만드는 경우, 또는 경부척추증에서 골증식체에 의하여 척추동맥이 압박받는 경우등에서 흔하다. 노인에서 고개를 들고 위를 올려다볼 경우 혹은 갑자기 고개를 돌릴경우에 뇌허혈이 일시적으로 초래될수 있다. 빈혈·폐질환으로 인한 저산소증·다혈구증·저혈당증 같은 내과적 질환으로도 일과성뇌허혈은 일어날수 있다. ②뇌졸중: 뇌동맥혈전증·뇌출혈·뇌색전증 순서로 흔하다. 뇌동맥폐쇄는 젊은 사람에서

갑자기 下肢마비가올때 血管질환의심 연탄가스中毒후엔 지연성후유증많아

전증에 의한 뇌혈관폐쇄도 적지않다. 뇌혈전증은 대개 서서히 발병하며 진행된다. 젊은층에서 보다는 병변이 다발성·양측성으로 발생할수있어 편중후보다는 연하곤란·웃고·울고하는 가성구마비 증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또한 화를잘내고 난폭해지기도 하며 의욕저하·기억력소실·판단력소실등을 보이기도 한다. 좌측마비가 온 환자가 우측마비가 발생하는 경우 가장알기 쉬운 증상은 어느날 갑자기 발생한 연하곤란이다. 이것은 양측성병변으로 하부뇌신경이 가성마비된 증상의 일환이다. 내포·방선관 주위에 작은뇌혈관폐쇄가 노년층에서 보다더 많이 일어날수 있어서 운동마비만 또는 감각마비만 초래되기도 한다. 노년에서는 부행순환(collateral circulation)이 좋지않아 심하지 않은 폐쇄증으로 쉽게 그 해당부위의 기능저하가 나타난다. 뇌혈관장애가 기저핵에 침범하는 특이한 증상들이 나온다. 일측성파킨슨증후가 대표적이며, 미상해병변시는 무도병이, 시상하해병변시는 마치 투수가 공을 던지는듯한 격심한 무도증(Hemi-ballismus)이 초래된다. 노인의 뇌출혈시는 혈관의노화로 출혈의 양이 많아지는경우가 있으나, 뇌위축이 많이되어있어 뇌압상승에 잘 견디는 유리한점이 있기는하다. 뇌기저동맥의 동맥류가 노인에서보다 많고 치명적인 후외출혈을 만들수있다. 당뇨환자에서는 세균성동맥류출혈을 볼수있고, 혈액질환있는 환자에서는 만성경막하출혈이 일어날수있어 두통심지어는 치매까지도 초래한다. 노인에서는 피부나 근육의영

가장 많고 폐, 유방, 소화계, 전립선등에서 전이되어 온다. 원발성인 경우는 악성인 다형성교아종이 많아 빠르게 증상이 악화되고 뇌부종때문에 의식의 장애가 있어 뇌출중과비슷한 양상을 보이거나 뇌전산화촬영으로 쉽게 감별된다.

6. 감염성질환

노인에서도 뇌염·뇌막염은 드물지만 생길수있고 알콜중독이나 영양결핍자갈이 방어기전이 약화된 환자는 치명적인 경우도있다. 노년층에서 흔한 경부척추증이 뇌막염과 비슷한 양상의 경부감각을 보이므로 주의를 요한다. Herpes Zoster 감염은 50세 이후에 많이 발생한다. 신경주행을따라 피부에 수포성발진이 나타난다. 심한통증·발열·전신 쇠약등이 적어도 몇개월이 계속되어 곤란을 겪는 병중에하나다.

척수질환

뇌질환보다는 드물다. 척수를 둘러싸고 있는 척추의 변화에 의한 각종 질환이 많다.

1. 퇴행성질환

근위축성측색경화증이 대표적인 병이다. 대개 50세까지에서 발생하며 퇴행성변화가 운동세포에 생겨 근육소실·마비를주증상으로하며 특히 경부척수에 호발하기 때문에 상지의 근육소실과 하지의 근육긴장의 특이한 증상을 초래한다. 하부 뇌간 침범시는 혀의세동(fasciculation)과 위축도 볼수있다. 진행성 경과로 평균3.8년후 사망하게 된다.

2. 혈관질환

드물지만 척수에도 혈관질환이 발생한다. 갑자기 하지마비

혈행이 좋지않은 부위에 주로 발생하는 특징을 보여 T₁ 혹은 T₁₀ 이하 부위에 감각및운동마비를 보인다. 외상후 척수내 출혈이 생길수도 있다. 이 경우는 척수내종양처럼 감각해리를 보이면서 갑자기 척수기능이 손상된다.

3. 척수를압박하는 질환들

경부척추증·추간판탈출증같이 척추의 변화가 척수를 압박할수 있고, 속발성종양이 척수를 압박할수도 있다. 염증성질환에 의한 압박도 발생하며 지방막염이 대표적인데이다. 척수를 싸고있는 안대의 석회화에 의해 압박받는 것도노인에서 더욱 많다.

말초신경질환

말초신경의 변성은 60세가넘으면 점차 뚜렷해져 운동 및 감각신경의 전달속도가 80세가 되면 30세보다 10%나 감소한다. 변성은 신경말단부위부터 시작되며 진동·위치감각을 감지하는 말초신경의 변성이 동통·온도감각을 감지하는 말초신경보다 빨리 초래된다. 노년에서의 말초신경병변(Neuropathy)은 허혈·entrapment·일생을 통한 많은의상의 쌓인 영향·각종 대사성질환·입등의 많은 원인이 있고 신경재생능력이 감소되어있기 때문에 회복보다는 진행되는 쪽이다. 자율신경병변도 일어나며, 갑자기 일어서면 혈압이 떨어지고 의식을 잃는 기립성저혈압, 한쪽이나 양쪽 상하지의 온도의 변화, 피부의 건조, 대·소변의 변화, 소화장애 등의 여러 증상을 일으키기도 한다.